

중·고령층의 여가시간 사용분석 연구 -100세 시대에 대비한 노년교육 방향모색-

장 미 옥[†]
(동명대학교)

The Study of Leisure Time Use of Older Adults -To seek the Directions of Lifelong Education in Later Life for Homo Hundred-

Mi-Ok CHANG[†]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leisure time use of older adults and find out relationships between active/passive leisure activitie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in order to prepare later life for homo hundred. The subjects were 336 adults aged 50 and over in Busan city, Korea.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jects spent more time in active leisure than passive. But ratio of passive leisure time is getting higher with age. Second, cognitive activities changed from reading, computing, internet to hobbies, card games with age. Third, participation of active leisure activities are related to age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From this study, lifelong education including leisure education should support older adults to redesign their later life for homo hundred. Second, leisure education should focus on increasing the ability of accepting and utilizing leisure opportunities for older adults. Third, the role of lifelong educator should be emphasized to involve education field more actively. Forth,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have the knowledge of the purposes and motivations of older adults who participate in order to provide proper programs continuously. The connection between lifelong education and leisure time use and activities would lead later life with the quality of life and active aging.

Key words : Leisure time use, Active leisure, Older adult, Leisure education, Homo hundred, Lifelong learning in later life

I. 서론

인간수명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고려대 박유성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954년 생 남성 10명중 4명(39.6%)이, 여성은 10명중 5명(46.2%)이 98세까지 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Chosun Ilbo, 2011,1,3). 이런 현상은 예상보다 빠

른 의학발달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4,592명(Kim Hyo In, 2014)으로 지난 2005년에 961명, 2010년에 1,836명에 비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0b; Statistics Korea, 2005).

UN은 세계인구 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 Corresponding author : 051-629-2032, mochang@tu.ac.kr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1020649)

보고서(2009)에서 100세 이상의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로 지칭한다고 하였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이었으나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급증할 것이며 이때부터 ‘호모 헨드레드 시대’로 접어든다고 정의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빈 사망 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로 정의하고 대략 2020년에 100세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Lee Soo Young, 2012; Park Myong Soo, 2012).

100세 시대가 도래했을 때 사회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견하기는 힘들다. 다만 100세 시대에는 80세 시대와는 다른 인생설계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80세 시대에는 30-30-20의 라이프 사이클이 통용되었다(Chun Hong Taek et al, 2011). 초기 30년 동안 교육과 병역을 마치고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20년의 은퇴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세 시대는 노년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30-30-40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지만 이 구도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은퇴 후 40년 동안 현재와 같이 일 없이 보낸다면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의 마비, 삶에 대한 목적상실 등 불행한 노년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장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염원인데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 도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재앙으로 더 인식되고 있다. 100세시대가 축복인지 재앙인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32.9%가 축복이라고 한 반면 40.1%는 재앙이라고 응답하였다(Chun Hong Taek et al, 2011, p.52). 특히 고령자는 61.6%, 장년층은 41.6%가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어(Chun Hong Taek et al, 2011,p.52) 현실적으로 100세 시대를 즐겁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년층들은 베이비붐세대로 전체인구의 12.6% (72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집단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부터 60대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향후 30-40년간 고령인구의 대표적인 집단이 될 것이다.

응답자들이 100세 시대를 대비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노후 일자리, 여가시간 활용, 고령화 자체, 노후 소득 순으로 답하였다(Chun Hong Taek et al, 2011). 베이비붐 세대는 82.1%가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은퇴 후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다. 노후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준비여부에서 22.9%만이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한 반면 49.2%는 준비 안 됨을, 27.9%는 보통이라고 응답(Chun Hong Taek et al, 2011,p.55)하여 노후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설계나 대책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베이비 붐 세대들이 젊은 시절에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한국노인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7시간 12분(Statistics Korea, 2010a)으로 40년 동안 가진다면 10만 시간이 넘는다. 여가시간이 증가한다고 이것이 여가의 ‘질’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Kim, Jin Wook, 2006). 계획적인 여가생활이 강조되어야 하며 노년기에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노인대상의 여가연구는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즈음부터 많이 등장하였다(Kim Gi Young & Kim Hun Il, 2004). 선행연구들은 여가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면서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 만족도 조사와 효과, 영향 요인 등을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고찰에서 상세내용을 언급하겠지만 기존연구들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특정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들이 나머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조명이 없어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연구에서 참여활동의 빈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정작 노인들이 전체 여가시간 중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가시간을 질

적, 양적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가 없다.

노인의 생활시간을 다룬 Kim, Jin Wook (2006)의 연구에서 여가시간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여가생활의 질적 측면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가활동으로 대중매체, 문화·스포츠·취미와 같이 큰 영역으로 묶어 분석하였는데 대중매체 속에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을 모두 포함하였다. 신문, 잡지, 인터넷 이용은 질적 수준에서 권장할 만하나 TV 시청은 소극적인 여가시간 사용으로 바람직한 여가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 생활시간 조사나 여가활동조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고서(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Statistics Korea, 2010a)는 노인들의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계층을 60대 이상 혹은 65세 이상으로 단일화한 통계치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가 진행됨에 따라 여가시간 사용의 변화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60대의 노인과 80대의 최고령 노인이 같은 방식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좀 더 정확한 통계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노인계층을 단순히 '노인'으로 단일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연령에 따라 분류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여가시간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여가생활이 어떤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에는 여가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에 양면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아개발의 긍정적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알코올이나 게임중독으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노년기를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향유하는 여가시간과 활동

을 크게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이와 같은 연구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시간 사용과 참여활동을 분석하여 여가생활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령 집단에 따라 참여하는 활동과 시간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들이 선택한 적극적, 소극적 여가활동유형이 사회경제적 배경변인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적극적 여가의 하위영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회경제적 변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년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여가의 의미

노년기가 늘어나면서 노후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여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년층은 여가를 즐긴다는 것에 그리 익숙하지 않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치르고 국가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직업현장에서 일만 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가한 여가에 대해 부정적이기도 하다. 경제발전과 함께 1980년대부터 대중여가 시대가 열리면서 레크레이션이나 놀이 등 다양한 오락과 이벤트를 포함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흥과 오락을 여가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Lee Geum Yong, 2002; Chang Mi Ok, 2012). 그러나 실제 여가(leisure)의 어원은 그리스의 스킨레(scholé)에서 파생되어 자기생활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의미하며 교양을 쌓는 배움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Kim Young Soon et al, 2006). 스킨레가 오늘날 학교(school)의 의미로 전환된 것을 보더라도 여가의 원래 의미는 학습을 통한 자기개발

이다(Holba, 2007).

현대사회에서 여가의 개념은 노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Kelly, 2009). 강제적, 필수적인 일(work)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시간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여가는 직장(업)으로부터 탈피하여 휴식이나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 직장유지, 승진, 가족과 함께하는 목적성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젊은 세대에게 여가시간은 비교적 적다. 그러나 사회에서 공식적인 노동이 없는 노년층에게 허용된 긴 여가는 오히려 목적을 잃은 시간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다. 노년기의 여가는 재충전의 개념을 넘어 삶 자체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Lee, Myong Kyu, 2008).

노인들에게 여가란 집안일이나 식사, 잠 등 생존에 필요한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로 대략 하루 6시간 이상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긴 여가시간은 활용방법에 따라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제성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목적을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 편안한 마음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즐길 수 있다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Na, Hang Jin, 2002). 노년기의 여가는 지금까지의 사회중심적, 일중심적 삶에서 개인중심적 삶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삶의 행복감을 높여가게 된다.

여가는 반드시 활동을 동반한다. 그 활동의 유용성에 따라 여가시간도 가치를 가지게 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 여가활동(active leisure activity)을 권장한다(Brooker et al, 2010). 적극적 여가활동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을 활용하는 활동으로 독서, 평생교육참가, 신체적 운동, 대인과의 사교활동, 사회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반면에 소극적 여가활동(passive leisure activity)은 목적성 없이 텔레비전의 오락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라디오 청취, 음악 듣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취하는

것이다. 소극적 활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단지 적극적 활동과 소극적 활동과의 균형을 잘 맞춘다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여가생활이 될 것이다.

여가의 목적은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을 얻고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노년기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여가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Na, Hang Jin, 2003).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사회에서 제공하는 여가활동의 기회가 많아야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이 증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Altergott, 1988). 이런 관점에서 노인들의 여가시간 사용과 활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행은 현재노인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미래노인에게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2. 노년기 여가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노년기 여가연구는 주로 노인들의 참여여가활동 실태조사와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진행되어왔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실태조사연구(Na, Hang Jin, 2004; Park, Eung Hee, 2009; Kim, Hee Nyon & Jung Mee Suk, 2004; Hur Jin Soo, 2002, Kim, Young Gil, 2008)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노인들의 여가생활에서 TV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부산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 Eung Hee(2009)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에서 역시 TV나 비디오 시청과 같은 수동적 활동이 많았고 다음으로 걷기와 산책하기였으며 영화관이나 음악회 등 문화행사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밖의 활동보다는 집안이나 집주변의 활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현재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Na, Hang Jin (2003)은 노인들은 여가에 대해 생산적 개념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시청으로 소극적인 시간을 보내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가시간이 오히려 처치 곤란한 시간들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여가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이 사용한 여가활동분류기준이 각각 달라 앞으로 여가활동영역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가활동의 빈도로 분석하여 실제 활동에 사용하는 여가시간의 량에 대한 분석이 어려웠다. 여가시간을 산출하여 연구한 Kim, Jin Wook(2006)도 노인들의 여가 시간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TV 시청 등 수동적인 대중매체에 여가시간의 절반 수준인 3시간 이상을 소비함으로써 여가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대부분 집안 활동이 많고 특히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여가는 괴로운 시간임을 밝혔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연령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연령에 따른 차이 분석없이 진행된 아쉬움이 있다.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Hur, Jun Soo,2002; Kim, Young Gil(2008; Lee Kyung Jae & Nam Koong Sun, 2011;)에서는 교육과 연수입이 여가의 활성화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Hur, Jun Soo(2002)는 건강이 좋고,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Kim, Young Gil(2008) 역시 그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고 연수입이 많을수록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Hur, Jun Soo, Lee Kyung Jae & Nam Koong Sun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여가활동의 만족은 생활만족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결과를 통해 그는 노인들이 외부활동이나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여가활동 대책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노인 여가교육의 문제점을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의 미비와 여가교육 부족, 노인여가시설의 문제들로 지적하였다. 노인들도 자신의 소극적인 여가문제점을 알고 여가교육을 원하나 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Na Hang Jin,2004)을 인정하였다. 즉, 오락위주의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노년기에 필요한 죽음대비 프로그램이나 인문학 프로그램은 선호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고령층의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라 사용하는 평균여가시간의 차이는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고령층 연령집단별로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여가시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중·고령층 집단의 여가활동유형(적극적, 소극적여가)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중·고령층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적극적 여가의 하부영역은 그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기간

설문조사 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기은퇴자나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성인들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부산시민으로 정한 것은 부산이 광역시 중 고령화 속도가 빠른 곳이다. 2012년 65세 인구가 부산시민 전체의 12.4%를 차지하였으며(www.busan.go.kr) 2014년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은 1,374명으로 광역시 중 서울(4,522명) 다음(Kim, Hyo In, 2014)으로 많다. 부산의 100세 노인은 2005년 31명에서 2010년에는 91명으로 19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0b). 따라서 부산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시내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교회 등에서 임의표집방법과 자원자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수집과정에서 숙련된 설문조사자들이 대상자들을 도와 응답 시에 보조역할을 하였다.

회신된 설문지는 총 360부였으나 자료 처리 시에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사용한 결과 실제 최종분석에는 336부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었다.

3. 조사도구 설계

연구문제에 적합한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여가시간의 사용내역과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여가시간과 여가활동 선택과 관련이 있는 변인을 찾기 위해 중,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변인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으로 사회 인구학적, 경제적 변인인 성별, 연령, 건강, 학력, 수입, 결혼상태, 취업상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질문이다.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조사는 자기보고식으로 지난 7일 동안 자신이 참여한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생활이 날마다 다르고 주로 일주일 단위로 생활이 계획됨에 따라 지난 7일 동안의 여가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여가활동은 OECD보고서(2009)와 캐나다 (Brooker et al, 2010)에서 나눈 범주를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여가활동에 대한 질적 수준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분되어 있다. 설문 조사에서는 활동 종류를 제시하였고 연구자는 활동성 정도와 활동특성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1 버전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 변량분석 등으로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총 응답자 336명중 남성이 126명(37.5%)이고 여성이 210명(62.5%)이었다. 평균연령은 65.4세이고 연령범위는 50세에서 94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 분석과 결과의 명확성을 위해 연령을 50세부터 10년 단위로 묶어 50대층(50-60세), 60대층(61-70세), 70대층(71세 이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50대층은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이다.

<Table 1>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연령집단에 따라 비교분석한 것이다. 70대층 집단에서는 사별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결과, 독거노인이 많았다. 학력은 각 집단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70대층은 집단 내에서 70.7%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보인 반면 50대층 집단에서는 21.9% 정도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는 50대층 집단(61.3%)이 60대층 집단(30.4%)보다 2배 정도 높았다. 베이비붐 세대는 타 연령집단보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많았고 이는 앞으로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점점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1> Respondent background characteristics

		All respondents		50s group		60s group		70s group	
		n	%	n	%	n	%	n	%
Gender	Male	126	37.5	39	32.8	59	47.2	28	30.4
	Female	210	62.5	80	62.7	66	52.8	64	69.6
	Total	336	100.0	119	100.0	125	100.0	92	100.0
Marital status	Married or common law	227	67.6	91	76.5	94	75.2	42	45.7
	Divorced or separated	25	7.4	14	11.8	8	6.4	3	3.3
	Widowed	78	23.2	11	9.2	22	17.6	45	48.9
	Single	6	1.8	3	2.5	1	.8	2	2.2
	Total	336	100.0	119	100.0	125	100.0	92	100.0
Person(s) lived with	Spouse	207	61.1	81	68.1	88	70.4	38	41.3
	Child(ren)	62	18.5	24	20.2	21	16.8	17	18.5
	Relatives	4	1.2	2	1.7	1	.8	1	1.1
	Alone	63	18.8	12	10.1	15	12.0	36	39.1
	Total	336	100.0	119	100.0	125	100.0	92	100.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9	23.5	7	5.9	31	24.8	41	44.6
	Junior High school graduation	72	21.4	19	16.0	29	23.2	24	26.1
	High school	126	37.5	73	61.3	38	30.4	15	16.3
	College education	42	12.5	16	13.4	16	12.8	10	10.9
	Master's degree and beyond	17	5.1	4	3.4	11	8.8	2	2.2
	Total	336	100.0	119	100.0	125	100.0	92	100.0
Current household income	Less than \$20,000	156	46.4	35	29.4	60	48.0	61	66.3
	\$20,000 - \$29,999	87	25.9	35	29.4	35	28.0	17	18.5
	\$30,000 - \$39,999	34	10.1	16	13.4	13	10.4	5	5.4
	\$40,000 - \$59,999	40	11.9	24	20.1	10	8.0	6	6.5
	\$60,000 or more	19	5.7	9	7.6	7	5.6	3	3.3
	Total	336	100.0	119	100.0	125	100.0	92	100.0
Work status	Retired	196	58.3	34	28.6	81	64.8	81	88.0
	Part-time work	140	41.7	85	71.4	44	35.2	11	12.0
	Total	336	100.0	119	100.0	125	100.0	92	100.0
Current health	Good	106	31.5	45	37.8	42	33.6	19	20.6
	Fair	187	55.7	66	55.5	69	55.2	52	56.5
	Poor	43	12.8	8	6.7	14	11.2	21	22.8
	Total	336	100.0	119	100.0	125	100.0	92	100.0

집단별로 나타난 가구당 연 수입은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연수입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70대층 노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

을 시사하고 있다. 노후가계소득의 최소수준 생활비는 평균 155만원으로 일 년에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적정수준은 3000만 원 정도이다(Chun

Hong Taek et al, 2011). 이 기준으로 볼 때 60대 층도 경제사정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3%가 은퇴 등의 이유로 일(직업)을 하지 않으며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14.7시간이었다.

건강상태에서는 87.2%의 응답자들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하여 건강은 긍정적으로 해석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가 2배의 비율로 나빠져 전문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여가활동과 사용시간 분석

응답자들이 일주일간 여가활동에 사용한 평균 시간은 40.5시간이었으며 하루 평균 5.8시간을 여가시간으로 사용한 셈이다. 이는 전국평균에서 나타난 7시간 12분(Statistics Korea, 2010a)보다 월등히 적다. <Table 2>는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여가시간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연

수입과 취업상태에서 여가시간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수입이 3000만원 이상인 집단과 은퇴자는 평균 여가시간보다 더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보편적인 가치이나 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가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3>은 설문지에서 주어진 20개의 여가활동에 사용한 여가시간을 연령별 집단에 따라 분석하였다. 여가활동의 특성에 따라 적극적, 소극적 여가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총 응답자의 평균여가시간 40.5시간 중 적극적 여가는 23.2시간(57.3%)이고 소극적 여가는 17.3시간(42.7%)이었다. 연령층별로 분석해 보면 50대층의 37.8시간 중 적극적 여가는 22.9시간(60.4%), 소극적 여가는 14.9시간(39.4%)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적극적 여가로 보내는 시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 Average Leisure Time on Each Variable

Var.	Attribute	n	Leisure time spent for 7 days		
			hours (mean)	SD	t/F & scheffe
Age	50s group	119	37.8	26.1	1.623
	60s group	125	43.7	28.0	
	70s group	92	39.6	22.1	
Gender	Male	126	40.4	28.2	-.026
	Female	210	40.5	24.5	
Health	Good	106	42.0	26.5	.338
	Fair	187	39.5	25.2	
	Poor	43	41.2	27.8	
Income	Less than\$20,000	156	37.2	23.8	2.59* ①②- ③④⑤
	\$20,000-\$29,999	87	38.9	23.9	
	\$30,000-\$39,999	34	46.5	28.3	
	\$40,000-\$59,999	40	49.9	32.4	
	\$60,000 or more	19	43.7	26.5	
Education	less than JHs	151	38.7	24.6	2.80
	High school	126	39.2	23.0	
	College ed & beyond	59	47.7	33.2	
Work status	Retired	196	44.9	25.9	-3.73**
	Part-time work	140	34.3	24.7	

* p<.05 ** p<.001

<Table 3>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time use

category	sub-category	activity	All respondents		50s group		60s group		70s group	
			hrs	%	hrs	%	hrs	%	hrs	%
Active Leisure	CA* ①	1. Reading (books/papers/magazines)	2.0	23.2	2.5	27.8	2.1	21.4	1.1	17.2
		2. Using a computer or the internet	1.5	17.4	2.2	24.4	1.8	18.4	.4	6.3
		3. Hobbies	1.9	22.1	1.7	18.9	2.3	23.5	1.5	23.4
		4. Attending educational activities	1.0	11.6	.8	8.9	1.3	13.3	.8	12.5
		5. Playing cards and board games	1.1	12.8	.7	7.8	1.2	12.2	1.5	23.4
		6. Writing letters	.2	2.3	.1	1.1	.3	3.1	.2	3.1
		7. Attending entertaining/sports events	.9	10.5	1.0	11.1	.8	8.1	.9	14.1
		Subtotal	8.6	100.0	9.0	100.0	9.8	100.0	6.4	100.0
	SA* ②	8. Socializing with friends, relatives	3.8	40.4	3.5	38.4	4.0	40.8	3.8	41.8
		9. Talking on the phone	3.0	31.9	2.8	30.8	3.0	30.6	3.2	35.1
		10. Social club, pub, restaurant	1.6	17.0	1.8	19.8	1.7	17.4	1.1	12.1
		11. Cinema, theatre, dance, parties	1.0	10.6	1.0	11.0	1.1	11.2	1.0	11.0
		Subtotal	9.4	100.0	9.1	100.0	9.8	100.0	9.1	100.0
	PA* ③	12. Exercising, walking, sports	3.7	100.0	3.3	100.0	4.4	100.0	3.2	100.0
		Subtotal	3.7	100.0	3.3	100.0	4.4	100.0	3.2	100.0
VU* ④	13. Volunteer work	.6	35.3	.7	36.8	.6	28.6	.5	50.0	
	14. Child care	.7	41.2	.6	31.6	1.1	52.4	.3	30.0	
	15. Adult care	.4	23.5	.6	31.6	.4	19.0	.2	20.0	
	Subtotal	1.7	100.0	1.9	100.0	2.1	100.0	1.0	100.0	
Passive Leisure	P* ⑤	16. Watching TV, video	8.5	49.1	7.5	50.3	8.0	45.2	10.2	51.3
		17. Relaxing	5.5	31.8	3.8	25.5	5.7	32.2	7.5	37.7
		18. Listening to the radio	1.5	8.7	1.4	9.4	1.6	9.0	1.3	6.5
		19. Listening to the tapes, CD	1.0	5.8	1.2	8.1	1.3	7.4	.6	3.0
		20. Taking pleasure drives	.8	4.6	1.0	6.7	1.1	6.2	.3	1.5
		Subtotal	17.3	100.0	14.9	100.0	17.7	100.0	19.9	100.0
total			40.5		37.8		43.7		39.6	

* ① CA: Cognitively active ② SA: Socially active ③ PA: Physically active
 ④ VU: Volunteer/Unpaid work ⑤ P: Passive

60대층의 경우 43.7시간 중 적극적 여가는 26.0시간(59.5%), 소극적 여가는 17.7시간(40.5%)이었고 70대층의 경우 39.6시간 중 적극적 여가는 19.7시간(49.7%), 소극적 여가는 19.9시간(50.3%)이었다.

장 미 옥

50대에 비해 60대, 70대층 집단은 여가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여가보다는 소극적 여가로 보내는 시간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극적 여가 활동영역에서 인지활동은 연령에 따라 특정 활동에서 차이 남을 알 수 있었다. 50대층 집단은 주로 독서나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60대층 집단은 취미활동과 독서의 비율이 높는데 70대층 노인 집단에서는 취미활동과 화투, 카드놀이의 비율이 높아졌다. 노년기가 진행됨에 따라 독서에서 취미활동과 카드놀이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은 현재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젊은 시절에는 접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도 있다. 앞으로 50대층인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뉴미디어의 사용변화추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타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사고 및 친목활동에서 모든 연령집단이 친구나 친척과의 만남과 전화로 대화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사교성 음주활동은 나이가 들에 따라 줄어드나 문화 활동은 비슷한 비율로 지속되었다.

건강유지활동도 연령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60대층 집단에서 타 집단에 비해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더 운동하여 건강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60대층 집단에서 어린이 돌보기가 타 연령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손자를 돌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극적 여가활동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활동에 치중된 것으로 보이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관관계를

<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time use on active and passive leisure activities and respondent backgrounds

Var.	Attribute	n	Time spent on active leisure			Time spent on Passive leisure		
			hours (mean)	SD	t/F & scheffe	hours (mean)	SD	t/F & scheffe
Age	50s group	119	23.0	18.7	3.25* ①②-③	14.9	10.8	3.77* ①-②③
	60s group	125	26.0	19.5		17.6	13.0	
	70s group	92	19.7	15.0		19.9	16.0	
Gender	Male	126	23.5	19.4	.24	16.9	14.5	-.38
	Female	210	23.0	17.5		17.5	12.6	
Health	Good	106	26.7	19.8	3.53* ①②-③	15.3	10.2	4.38* ①②-③
	Fair	93	22.2	17.2		17.2	12.5	
	Poor	137	18.8	17.0		22.4	20.5	
Income	Less than\$20,000	156	20.5	16.3	3.46** ①②-③ ④⑤	16.7	12.8	.68
	\$20,000-\$29,999	87	22.2	15.5		16.7	14.2	
	\$30,000-\$39,999	34	26.1	19.9		20.4	13.5	
	\$40,000-\$59,999	40	31.4	24.5		18.5	13.2	
	\$60,000 or more	19	27.3	20.5		16.4	13.1	
Education	less than JHs	151	20.6	16.1	6.03** ①②-③	18.1	14.9	.71
	High school	126	23.0	15.5		16.2	11.7	
	College ed & beyond	59	30.2	25.6		17.5	12.2	
Work status	Retired	196	25.6	18.4	-2.82**	19.3	13.9	-3.35**
	Part-time work	140	19.9	17.4		14.4	11.9	

* p<.05 ** p<.001

가지고 있었다. 70대층 집단은 주로 집안에서 신체 활동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70대 이후에는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그리 많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3. 여가활동 유형과 사회경제적 배경과의 관계

적극적 여가(active leisure)와 소극적 여가(passive leisure)로 사용하는 시간을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4>에서 적극적 여가는 연령, 건강상태, 연 수입, 교육수준, 취업상태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가져왔다. 5,60대층 집단, 건강이 좋은 응답자, 3천만 원 이상의 연수입을 가지고 있고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그리고 은퇴자들이 타 응답자들에 비해 적극적 여가활동에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연령과 건강, 취업 상태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낮다. 은퇴자이며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극적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극적 여가활동의 하위영역인 인지활동, 사교/친목활동, 건강 활동, 자원봉사활동을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으로 분석하여 <Table 5>에서 제시하였다.

<Table 5> Relationships between subcategories of active leisure time use and personal backgrounds

		Cognitively active		Socially active		Physically active		Unpaid care / volunteer work	
		M(hrs)	sd	M(hrs)	sd	M(hrs)	sd	M(hrs)	sd
Age	50s group	8.8	10.2	9.0	7.3	3.3	3.6	1.8	4.8
	60s group	9.7	10.5	9.9	8.3	4.4	5.0	2.0	3.9
	70s group	6.5	8.2	9.0	6.8	3.2	3.1	.9	2.3
	F & scheffe	2.90		.46		3.02* ^{①③-②}		2.40	
Gender	Male	10.0	11.1	8.4	7.6	4.3	4.6	.9	2.2
	Female	7.7	8.9	9.9	7.5	3.4	3.8	2.1	4.6
	t	2.04*		-1.78		1.96*		-2.5*	
Health	Good	10.8	10.4	9.6	7.5	4.4	4.9	1.9	4.8
	Fair	7.7	9.5	9.3	7.7	3.4	3.5	1.8	3.7
	Poor	6.7	9.0	8.6	7.2	3.1	4.0	.4	1.2
	F & scheffe	4.16* ^{①②-③}		.28		2.35		2.33	
Income	Less than\$20,000	6.9	8.8	9.0	7.3	3.4	4.4	1.3	2.8
	\$20,000-\$29,999	7.4	7.0	9.3	8.1	3.5	3.0	1.9	4.1
	\$30,000-\$39,999	11.3	11.0	9.6	7.4	4.2	5.5	.9	2.2
	\$40,000-\$59,999	13.5	15.0	10.0	7.4	4.9	3.9	3.1	7.2
	\$60,000 or more	11.5	9.2	10.3	8.5	3.6	3.7	1.8	2.9
	F & scheffe	5.15** ^{①②-③④⑤}		.23		1.16		2.07	
Education	less than JHs	6.4	7.6	9.4	7.5	3.4	3.5	1.4	3.3
	High school	8.6	9.1	9.3	7.4	3.4	3.4	1.7	3.7
	College ed & beyond	13.9	13.8	9.0	8.2	5.2	6.1	2.1	5.5
	F & scheffe	12.81** ^{①②-③}		.07		4.81** ^{①②-③}		.83	
Work Status	Retired	9.3	10.0	10.5	8.1	4.1	4.4	1.7	3.4
	Part-time work	7.5	9.5	7.7	6.5	3.1	3.6	1.6	4.6
	t	-1.65		-3.51**		-2.12*		-.11	

* p<.05 ** p<.001

인지활동에서 성별, 건강, 연수입, 교육수준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수입 3000만 원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고학력의 건강한 남성 은퇴자들이 타 집단에 비해 인지활동으로 여가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교/친목활동에서 은퇴자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건강유지활동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취업상태변인에서 집단 간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고학력의 남성 은퇴자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건강유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성별과 관련이 깊어 여성 응답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50세 이상의 중·고령층 집단의 여가시간 사용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노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첫째, 중·고령층이 전국평균 여가시간(7.12시간)보다 적은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 여가에 23.2시간(57.3%), 소극적 여가에 20.3시간(42.7%)를 사용하고 있어 소극적 여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소극적임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극적 활동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았다. 소극적 여가활동은 모든 노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관계있는 상황임을 명확히 증명하였다. 지속적으로 활기찬 노화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여가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며 개인과 사회차원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종류에서 차이를

보였다. 독서,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등 인지활동은 50대층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70대층 집단에서는 화투나 카드놀이 등 가벼운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글을 통한 인지활동에서 그림(카드)을 통한 인지활동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밝힐 수 없었던 부분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종류는 연령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인지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시사하고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노년기 생활에 관여 정도는 현재 50대 층인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인지활동의 변화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가 주민자치센터나 도서관 등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참여시간 비율이 적은 것은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사회경제적 배경변인은 여가유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여가참여는 연령, 건강상태, 연수입, 교육수준, 취업상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참여가 교육과 건강, 연수입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소극적 여가활동은 건강과 연령, 사회활동이 없음과 연관이 깊어 적극적 여가와 소극적 여가활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다름을 연구에서는 밝혔다.

적극적 여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여가활동 집단의 특성인 건강과 사회활동의 여건을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텔레비전 시청이나 휴식시간이 길게 나타나며 소극적 여가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건강문제로 활동범위의 축소가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되며 지속적인 건강유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종합적으로 여가시간이나 활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변하며 적극적인 활동에서 소극적인 활동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이나 연수입이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에 관

련있는 변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저학력층이나 저소득층이 적극적 여가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를 통하여 소극적인 여가활동에서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100세 시대를 준비할 노년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년교육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여가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뜻한다. 첫째, 노년교육은 노년기 삶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100세 시대는 노년기의 자립심, 사회참여, 공생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년교육은 개인이 노년기 삶을 컨설팅하고 지도(map for later life)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가프로그램은 여가복지 시설인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노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락중심의 복지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명확히 말하자면 교육적 기능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Chang, Mi Ok, 2008). 따라서 여가교육은 현재의 한계를 벗어나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개인이 삶의 의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통해 자기능력 개발과 사회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사회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이 적극적 형태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가교육은 여가의 수용능력과 활용능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흔히 여가교육은 활동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가가 삶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 영향을 주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는 주로 학자들의 연구주제일 뿐 일반인에게 크게 강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가의 기본 전제인

시간과 활동에 대한 교육, 그리고 생애사적 관점에서 여가활동의 변화에 대한 기본지식 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시간은 개인소유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시간사용방법이 제대로 교육된 적은 없다. 개인이 자신의 생활을 관찰하고 반성하여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여가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기 주도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여가시간을 생산적,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적 차원의 활동계획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여가교육이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흔히 직장인들은 노년기의 삶은 은퇴 후에 준비한다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은퇴 후의 삶은 시간낭비만 있을 뿐이다. 결국 시간확보는 건강유지와 체계적인 생활습관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단순취미활동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추구하는 기능성 여가(serious leisure) 활성화로 성취와 생산성을 높이는 시간사용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하여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 건강은 70대에 들어서면서 확연히 나빠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여가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시급하다. 건강이 무너지면 소극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정신 건강 역시 무너지게 된다. 신체적 건강은 인지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 예술활동은 노화가 진행되어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것은 노년기 초기의 문화예술교육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노년기 진행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순차적인 단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노년기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평생교육사는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행정적인 일에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사는 노인의 생애발달과 여가활동, 삶의 욕구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할이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극적 여가

활동 집단의 특성에 주목하여 그들이 집밖에서의 활동에 관심과 재미, 의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평생교육사 역시 지속적인 교육이나 연수대상이 되며 우수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지자체나 교육기관이 마련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본다.

넷째, 평생교육기관은 노인들의 여가 혹은 교육활동의 참여 목적과 취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요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노년층과 젊은 층이 추구하는 성취목적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평생교육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뷔페식의 개별적인 프로그램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한 과정이 끝난 경우 지속성이 없어 노인들의 참여활동이 단절되거나 계획에 없던 다른 프로그램을 기웃거리며 흥미를 잃는 경우가 있다. 5,60대의 참여자는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동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학습자들이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심화적인 단계로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00세 시대는 80세 시대와는 다르다. 정신적, 신체적 쇠약으로 이어지는 노년기의 연장에 활기찬 노년을 살기 위한 중요한 변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사회와 교류하며 삶에 대한 의지와 동기,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노년교육은 이런 차원에서 노년기 삶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교육단계에 따라 조력해 주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100세 시대에는 노년기에도 여전히 미래를 논하고 계획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노년기를 개인의 몫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삶의 설계와 이행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65세의 의미는 그리 크지 않으며 이

전세대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다. 노년기에 부여되는 긴 여가시간을 긍정적, 생산적 삶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년교육이 주도해야 하는 역할이 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이나 종교 기관 등에 참여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관에 참여하지 않는 성인들의 의견반영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는 이 점을 보완하여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rooker, A.s. & Hyman, I. (2010). Time use: A report of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Busan Metropolitan City Homepage. statistics in Busan, www.busan.go.kr
- Chang, Mi Ok(2008). Achievement and Perspective of Older Adult Education in Korea, *Andragogy Today*, 11(1), 57~83.
- Chang, Mi Ok(2012). The Study of Leisure Time Use of Older Adults: Based on the Case of Older Adults in West Area in Canada, *Andragogy Today*, 15(3), 91~114.
- Chosun Ilbo(2011.1.3). [100 year-old shock] Is it Blessing or disaster? <http://news.chosun.com>
- Chun, Hong Taek et. al(2011). How to Live happily in Home Hundred?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Human New Deal Report 11-05-02.
- Holba, A. (2007). *Philosophical Leisure: Recuperative practice for human communication*. Milwaukee: Marquette University Press.
- Hur, Jun Soo (2002). Determinants of Leisure Activities among Urban Elderly Person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2(2), 227~247.
- Kelly, R(2009). Work and Leisure: A Simplified Paradigm,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1(3),

- 439~451.
- Kim, Chul Joong(2012.2.16). Depression 2700 thousand people... 70% increased during last 10 years, Chosun Ilbo, section1.
- Kim, Gi-yong & Kim, Hun Il(2004). Analysis on the tendency of Leisure Stud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3(5), 689~703.
- Kim, Hee Nyon & Jung Mee Suk(2004). The Study for Activating Elderly's Utilization of Leisure Programs Based on the Needs of the Elderly Using Community Welfare Institution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6, 263~285.
- Kim, Hyo In(2014.8.8). 100 year old adults 14, 592.. Among them 30% live in Seoul, Chosun Ilbo, A14.
- Kim, Jin Wook(2006). A Study on the Time of the Elderly in Korea - Analysing their use of time upon work, family and leisur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2, 149~177.
- Kim, Young Gil(2008). The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Lei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4(1), 44~55.
- Kim, Young Soon & Lee, Chul Won(2006). Leisure and Culture. Seoul: Ryokrak.
- Lee Geum Yong(2002). Social Activities in Later Life in Korea(Focus on Leisure and Volunteer Activities), Andragogy Today 5(3), 1~22.
- Lee, Kyung Jae & Nam Koong Sun(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Participation at the Leisure Activities to the Sense of Self-respect,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3, 59~81.
- Lee, Myong Kyu(2008). Issues of Modern Leisure Studies, Seoul:Hanall Publisher.
- Lee, Sae Jung(2012). Policy of activation of lifelong learning for the preparation of retirement of baby boom generation, Homo Hundred Conference Casebook, 393~420.
- Lee, So Jung(2012). Fostering Plan for Older Adult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y Preparing for Homo Hundred, Homo Hundred Conference Casebook, 195~229.
- Lee, Soo Young(2012). Implication and Policy Direction for Homo Hundred, Reference of Conference for Homo Hundred, 3~2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0). 2010 National Survey of Leisure Activities. <http://www.mcst.go.kr>
- Na, Hang Jin(2002). A Study of the Elderly for Successful Ag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18(winter), 131~162.
- Na, Hang Jin(2003).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eisure of the Elderly in Seoul A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2(winter), 35~53.
- Na, Hang Jin(2004). A Study on the role of leisure of the elderly for upgrading of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1), 53~70.
-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 Park, Eung Hee(2009). A Study on the Aged Learners to Analyse the Education Market for the Aged - Centering on the P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5(3), 137~158.
- Park, Myong Soo(2012). Tasks and prospect of manpower provision in Homo Hundred, Homo Hundred Conference Casebook, 363~390.
- Statistics Korea(2005). 2005 censu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otalization of Survey of beyond 100 year-older adults, <http://kostat.go.kr>
- Statistics Korea(2010a). 2009 Result of Life Time Use. <http://www.kostat.go.kr>
- Statistics Korea(2010b). 2010censu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Totalization of Survey of beyond 100 year-older adults, <http://kostat.go.kr>
- Statistics Korea(2011). 2010 Statistic Report of Cause of Death. <http://www.kostat.go.kr>
- UN (2009).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New York: UN.

-
- 논문접수일 : 2014년 11월 05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5년 01월 12일
2차 - 2015년 01월 27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02월 02일